

살아난 방망이·에이스로 반등 나선다

TIGERS 타이거즈 전망대

KIA 타이거즈가 '에이스'를 앞세워 반등에 나선다. 뜨거운 화력소로 연패를 끊은 KIA 타이거즈가 1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KT 위즈와 주중 3연전을 갖고 연승 잇기에 나선다. 이어 주말에는 잠실로 가 두산 베어스와 주말 3연전을 치른다.

KIA는 지난주 시즌 첫 연승을 기록하는 등 3승 2패로 승률을 높였지만, 비로 경기를 쉬어갔던 12일 키움에 밀려 최하위까지 추락했었다. 13일 뜨거운 화력으로 하루 만에 최하위에서 탈출은 했지만 갈 길이 멀다.

부상 약재를 달고 '디펜딩 챔피언'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

모처럼 살아난 타선의 흐름 유지가 중요하다.

KIA는 13일 SSG전에서 장단 14안타를 터트리면서 시즌 첫 선발 전원 안타를 장식했다. 시원한 홈런도 연이어 나왔다. 패트릭 위즈덤이 KBO리그에서 첫 멀티포를 장식했고, 오선우는 시즌 첫 경기에서 결승 투런을 장식했다.

최근 타격 하락세를 보였던 김규성도 멀티히트를

네일, KT·잠실 두산전 2차례 등판 '토종' 양현종·윤영철 반전 있어야

기록했고, 놀라운 수비까지 선보이면서 공수에서 눈길을 끌었다.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예비FA 박찬호와 최원준이 침착하고 끈질긴 승부로 힘을 보태줘야 한다. 빠른 발을 보유한 두 선수는 특히 출루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

수비에서도 두 선수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즌 초반 KIA의 발목을 잡은 것 중 하나가 수비다. 올 시즌 17경기에서 기록된 팀 실책은 12개, 전체 7위지만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실책이 많았다. 눈에 보이지 않은 실수도 많았다. 박찬호와 최원준이 주자로 '한 루'를 더 가고, 야수로 '한 루'를 막으면서 승수 쌓기에 힘을 보태야 한다.

마운드에서는 제임스 네일의 역할이 막중하다.

네일은 15일 KT 고영표와 선발 맞대결을 벌인다. 네일은 20일 두산전까지 두 경기를 책임져야 하는 만큼 효율적이고, 공격적인 피칭으로 이닝을 풀어가야 한다.

'하던 대로' 해 준다면 KIA로서는 바랄 게 없다.

네일은 지난 3일 삼성전까지 3경기에서 무실점 행진을 펼쳤다. 9일 롯데전에서 3회 1실점은 했지만 이후 7회까지 추가 실점 없이 마운드를 지키면서 시즌 2승에 성공했다.

네일은 올 시즌 4경기에 나와 25이닝을 1실점으로 막고, 0.36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다.

'유지'가 키워드인 네일, 토종 좌완 투수들은 '반전'을 목표로 해야 한다.

KIA는 지난주 선발 싸움에서 밀리면서 2패를 기록했다. 10일 롯데전 선발로 나선 윤영철은 1이닝 6실점으로 고개를 숙였고, 양현종도 SSG를 상대로 4.1이닝 6실점의 패전투수가 됐다.

3월 26일 키움을 상대로 한 시즌 첫 등판에서 2이닝 6실점(2자책점)을 했던 윤영철은 15일 만의 등판에서 눈물을 보였다. 등판이 연달아 밀리는 등 상황이 좋지 못했다. 이번에는 핑계 없이 선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양현종도 올 시즌 4번의 등판에서 20.1이닝을 소화하는 데 그쳤고, 6.64의 평균자책점으로 3패만 기록하고 있다. 베테랑의 노련함으로 위기를 넘겨야 한다. 두 좌완이 반등의 한 주를 보내면서 KIA 순위 싸움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도영 복귀 늦어진다

부상 부위 완벽하게 호전 안돼…일주일 재활 뒤 재검 김선빈 '이상무'·곽도규 수술대 오르며 시즌 조기 마감

김도영의 복귀 시계가 늦춰졌다. 곽도규는 일찍 시즌을 마감한다.

KIA 타이거즈의 '부상병' 김도영, 김선빈, 곽도규가 14일 재검진을 받았다. 내야수 김선빈은 '이상무' 진단을 받았지만 내야수 김도영과 좌완 투수 곽도규의 결과는 좋지 못했다.

개막전에서 좌측 햄스트링 손상 부상을 입었던 김도영은 지난 3일에 이어 이날 구단 지정 병원인 선한 병원에서 MRI 검진을 받았다.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서도 교차 확인을 한 결과 부상 부위가 완벽하게 호전되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실전을 앞두고 있던 김도영의 걸음이 다시 늦춰지게 됐다.

김도영은 일주일 가량 재활·치료를 전념한

뒤 검진을 받을 예정이다.

좌측 종아리 근육 부분 손상으로 지난 5일 엔트리에서 빠졌던 김선빈은 부상 부위 호전으로, 기술 훈련에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 김선빈은 2-3일 정도 기술훈련을 한 뒤 퓨처스 경기를 통해 마지막 점검을 할 예정이다.

11일 등판 뒤 팔꿈치 통증으로 엔트리에서 탈소했던 곽도규는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곽도규는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서 MRI 검진을 받은 결과, 좌측 주관절 골극근 및 인대 손상 진단을 받았다. 내측측부인대 재건술을 받아야 하는 만큼 곽도규는 9경기 기록을 남기고 시즌을 종료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정후 연타석 홈런…SF, 23년만에 '선물 받다'



13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뉴욕시 양키스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에서 6회 3점 홈런을 친 후 베이스를 돌고 있다.

/연합뉴스

2002년 이후 양키스 원정 위닝시리즈…이, 3타수 2안타 4타점·1볼넷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뛰는 외야수 이정후(26)가 뉴욕 양키스를 상대로 연타석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는 14일 미국 뉴욕의 양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MLB 정규시즌 양키스와 원정 경기에서 5-4로 이겼다.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한 이정후는 4회와 6회 연타석 홈런을 날리며 팀의 5득점 가운데 혼자 4타점을 올려 팀 승리의 일등 공신이 됐다.

특히 이정후는 지난해 미국 진출 후 처음 방문한 양키 스타디움 3연전에서 홈런 3개를 포함해 9타수 4안타, 7타점의 맹활약을 펼쳤다.

이정후는 이날 1회 첫 타석에서 중견수 직선타로 물러났으나 4회 두 번째 타석에서 시즌 2호 홈런을 터뜨렸다.

팀이 0-3으로 뒤진 4회 1사 주자 없을 때 나온 이

정후는 양키스 선발 카를로스 로몬의 6구째 시속 138km 슬라이더를 받아쳐 오른쪽 담장을 넘겼다. 시속 166.2km로 123.7m나 날아간 타구였다.

1-3으로 따라붙은 6회 역전 홈런의 주인공도 이정후였다. 이정후는 6회 1사 1, 2루에서 다시 로몬을 만나 5구째 시속 131.5km 커브를 통타, 우월 역전 스리런 홈런을 작렬했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에 입단한 이정후의 첫 연타석 홈런, 한 경기 2개 홈런이다.

또 지난 시즌 16승을 거둔 리그 정상급 좌완 로몬이 한 경기에서 왼손 타자에게 홈런 2개를 맞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시즌 어깨 부상으로 시즌을 일찍 마감한 이정후는 홈런 2개를 기록했고, 올해는 이번 양키스 3연전에서만 홈런 3개를 터뜨려 MLB 데뷔 시즌 홈런 개수를 추월했다.

이정후는 8회 선두 타자로 나와 볼넷으로 출루하며 이날 3타수 2안타 4타점, 볼넷 1개로 맹활약했다.

이정후의 활약으로 샌프란시스코는 MLB에서 인터리그 경기가 도입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양키스 원정을 위닝 시리즈(3경기에서 2승 이상)로 마쳤다.

시즌 타율 0.352(54타수 19안타)가 됐고, 출루율과 장타율을 더한 OPS는 1.130까지 올랐다.

올 시즌 홈런 3개와 11타점은 지난 시즌 성적(홈런 2개·8타점)을 이미 상회하기 시작했다. 도루도 3개를 성공해 지난 시즌 2개보다 1개 더 많다. 지난 시즌 타율은 0.262, OPS는 0.641이었다.

이정후는 "중요한 것은 팀 승리와 팀이 원정에서 위닝 시리즈를 쟁했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즐겁고 비오는 날씨에서 경기한 것이 처음인데, 상대도 같은 상황이라 정신력에 더 신경을 썼다"고 소감을 전했다.

/연합뉴스



14일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 제89회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연장 접전 끝에 우승한 로이 매킬로이가 그린재킷을 입고 있다.

/연합뉴스

마침내 '그린 재킷'…끝내 '그랜드슬램'

매킬로이 17번만에 마스터스 우승…11년만에 4대 메이저 제패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가 여러 차례 좌절을 겪었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마침내 꿈에 그리던 '그린 재킷'을 입고 커리어 그랜드슬램의 대업을 이뤘다.

매킬로이는 14일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 제89회 마스터스 토너먼트 최종 4라운드까지 11언더파 277타로 저스틴 로즈(잉글랜드)와 동타를 이룬 뒤 1차 연장전에서 버디를 잡으며 정상에 올랐다.

매킬로이의 통산 5번째 메이저 우승이자, '명인 열전'으로 불리는 마스터스에서는 첫 우승이다.

2007년 프로로 데뷔해 남자 골프 최고의 스타로 군림하며 US오픈(2011년), PGA 챔피언십(2012·2014년), 디오픈(2014년)에선 일찌감치 정상에 올랐던 그는 약 11년 만에 메이저 트로피를 추가, 4대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는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마스터스와 US오픈, 디오픈, PGA 챔피언십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제패한 선수는 진 사라젠과 벤 호건(이상 미국), 게리 플레이어(남아프리카공화국), 잭 니클라우스·타이거 우즈(이상 미국)뿐이었다.

특히 우즈가 2000년 디오픈 챔피언십 우승으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이후 25년 동안 새로운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았다가 매킬로이가 전설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매킬로이의 그랜드슬램은 지독하게도 우승과 인연이 없었던 마스터스에서 17번째 도전 끝에 극적으로 이뤄진 터라 '서사'는 더욱 풍성했다.

마스터스는 메이저 대회 중 가장 적은 수의 선수들이, 매년 같은 골프장에서 경쟁하는 대회다. 세계 최고의 명문 골프장 중 하나로 꼽히는 오거스타 내셔널은 가장 폐쇄적인 곳으로도 알려져 마스터스는 선수들에겐 꼭 오고 싶은 대회로 여겨진다.

매킬로이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6차례 출전했으나 오거스타는 그에게 쉽게 '그린 재킷'을 허락하지 않았다.

매킬로이는 2011년 US오픈에서 우승하기 전 첫 메이저 우승 기회를 그해 마스터스에서 잡았다. 그러나 당시 단독 선두로 들어간 마지막 날 8오버파 80타를 치며 무너졌다.

2018년에도 챔피언 조에서 오버파 스코어로 패트릭 리드(미국)에게 우승을 내줬고, 2022년엔 마지막 날 8언더파를 몰아쳤으나 스코티 셰플러(미국)를 넘지 못하고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5개 대회에 출전해 2승을 거두며 부활 기운을 보인 매킬로이는 이번 대회에서 한을 풀었다.

올해도 첫날엔 타수를 줄이지 못해 20위권으로 출발했고, 2타 차 단독 선두로 나선 최종 라운드 중에도 디샴보나 로즈에게 단독 선두 자리를 때때로 허용하며 마음을 졸여야 했다.

4라운드 18번 홀(파4)에선 두 번째 샷을 그린 주변 bunker에 빠뜨린 뒤 bunker샷을 홀 1.5m에 올려놔오 파 퍼트를 놓치며 연장전에 끌려가 오거스타와의 악연이 재연된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매킬로이는 같은 홀에서 이어진 로즈와의 1차 연장전에서 두 번째 샷을 완벽하게 핀에 붙이며 버디를 낚아 파에 그친 로즈를 따돌렸고, 그린에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의 그랜드슬램'을 완성했다.

한편 한국의 임성재는 이날 3타를 줄여 최종 합계 7언더파 281타로 디샴보와 공동 5위에 올라 2020년 준우승, 2022년 공동 8위에 이어 마스터스에서 3번째 톱10에 들었다.

안병훈은 공동 21위(2언더파 286타)에 자리했고, 김주형은 이날만 7타를 잃으며 컷을 통과한 선수 중 최하위인 공동 52위(9오버파 297타)에 그쳤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